



출처 : Nucleonics Week & Nuclear Energy Institute 등

한국수력원자력(주) 사업협력부 ☎ 054-704-7814

## [주요기사]

1. 핀란드 Fennovoima社 러시아産 원전 건설계약 취소, 건설부지는 유지  
○ Hanhikivi-1 건설계약 취소, Rosatom社 법적조치 예고
2. 유럽 EU, 녹색 분류체계(Taxonomy) 원자력 및 천연가스 포함가능 시사  
○ EU 집행위원회(EC)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써 원자력 활용에 우호적입장 표명
3. Southern 社 경영진, Vogtle 원전 확장계획 진행 위해 '보다 많은 작업' 필요  
○ Vogtle 원전 3호기 건설경험의 공유를 통한 프로젝트 정상 진행 기대

# 핀란드 Fennovoima社 러시아産 원전 건설계약 취소, 건설부지는 유지

(Finland's Fennovoima cancels Russian reactor plan but keeps project site)

- Hanhikivi-1 건설계약 취소, Rosatom社 법적조치 예고 -

출처 : Nucleonics Week Vol.63 / Issue 18 / May 4, 2022

- 핀란드 Fennovoima社는 5월 2일 RAOS Project社(Rosatom社의 자회사)와의 Hanhikivi-1 원전 건설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히며, 계약 취소 사유로 건설 지연과 프로젝트 완수 능력 부족, 또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함
- Hanhikivi-1 프로젝트는 이전부터 지연과 비용 초과가 발생해 왔으며, Fennovoima社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그 관리에 실패했다고 계약취소 사유에서 주장한 한편, Rosatom社는 Hanhikivi-1의 건설 관련 규제당국 제출서류를 포함해 모든 의무사항을 세심하게 완수하였다고 주장함
- 핀란드 고용경제부는 지난 2월 국방부 권고에 따라 Hanhikivi-1 프로젝트의 안보 리스크에 대한 특별평가를 개시하였으며, Lintila 고용경제부 장관은 의회 국정질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Hanhikivi-1 건설허가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
- Fennovoima社는 계약 취소 결정이 숙고 후 내려진 것이며, 종사자 대부분의 직장 상실과 예정부지 인근지역 경제 악영향 등 계약 취소의 부정적 영향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. 이 결정에 대해 Rosatom社는 이유가 납득 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한편, 핀란드 고용경제부는 현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조치라고 함
- Fennovoima社 이사회 의장 Harmala氏는 향후 더 많은 원전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, 회사가 이미 6억~7억 유로(약 8,087억~9,435억 원)를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고 밝힘. Fennovoima社 CEO Joachim Specht氏는 Hanhikivi 부지를 ‘향후의 사업’을 위해 보류해 둘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힘◆

# 유럽 EU, 녹색 분류체계(Taxonomy) 원자력 및 천연가스 포함가능 시사

- EU 집행위원회(EC)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써 원자력 활용에 우호적입장 표명 -

출처 : Nucleonics Week Vol. 63 / No. 18 / May 4 , 2022

- 유럽원자력산업무역협회(이하 Foratom) 대변인은 27일 유럽연합(이하 EU)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분류체계(taxonomy)<sup>1)</sup>에 원자력을 포함시키기 위한 보충위임법(complementary delegated act, 이하 CDA)이 이르면 오는 7월까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
- 同 녹색 에너지분류체계(taxonomy)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직접 민간 및 공공 투자를 돕도록 고안되었으며, CDA는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원자력 프로젝트에만 적용됨
- EU 위원회는 올해 1월 각국 정부에 보낸 문서에서 이 분류체계에 원자력과 일부 조건에서는 천연가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.
- 원자력 에너지가 전력 혼합의 70%를 차지하는 프랑스는 원자력의 EU 분류체계 포함에 찬성하는 입장임. 이에 우호적인 나라들은 핀란드와 불가리아, 체코, 헝가리를 포함한 몇몇 동유럽 국가들임
- 한편 독일은 2022년 말까지 국내 원자력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힘. 오스트리아, 룩셈부르크, 아일랜드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 또한 원자력의 지속적인 사용과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함
- Foratom의 사무총장인 Desbazeille氏는 원자력 발전이 높은 비용 관련하여 자본 준비의 중요성을 언급함. 또한 자금 조달 비용은 최종 생산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EU 의사결정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◆

1) Taxonomy는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며,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활동에 자금이 투자되도록 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 및 판별하는 수단으로 20년에 제정되었음.

# Southern 社 경영진, Vogtle 원전 확장계획 진행 위해 ‘보다 많은 작업’ 필요

- Vogtle 원전 3호기 건설경험의 공유를 통한 프로젝트 정상 진행 기대 -

출처 : Nucleonics Week Vol. 63 / Issue 18 / May 4, 2022

- Southern 社 경영진, Vogtle 원전 확장프로젝트 목표 달성 및 비용초과 방지 위해 전기와 기타 분야 작업 완료가 요구됨
-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(NRC)의 Southern 社에 대한 연방규정 위반 사실 발견 후 Vogtle 원전 특별검사 수행. 추가 위반사항 없어 조사 종료 및 발전소 건설작업 정상 진행 중
- Southern 社는 건설생산성 향상 위해 Vogtle 원전 3호기 건설 중 습득한 교훈을 4호기 적용 중이며, 연료장전 위해 연료 이송계통 점검, 임시조명 제거 및 영구조명 설치, 비계 제거 작업 준비 중
- Vogtle 원전 확장프로젝트와 관련하여 Georgia Power 45.7%, Oglethorpe Power 30%, 조지아 지역전기공사 22.7% 그리고 Dalton Georgia에서 1.6%의 지분 소유
- Georgia Power 측은 6월에 3년 주기 요금정산 신청을 추진 중이며 12월 가격 결정 예정.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잠재적 비용증가와 별도로 Vogtle 원전 2기의 계통병입 관련 2023년과 2024년 초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됨.
- Southern 社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전기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10~15% 낮은 수준이며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통해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및 전기요금 인하 가능. ◆